

기쁨속에 보아주신 통합생산체계

2017년 2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삼천메기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종합조종실에서 공장에 구축한 통합생산체계를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그곳에 나와있는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에게 평양메기공장과 삼천메기공장 통합생산체계구축에서의 차이가 무엇인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의 설명을 주의깊게 들어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국가과학원이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고있다고 그들의 성과를 치하해주시였다.

일군은 송구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사실 거기에는 남다른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두해전 평양메기공장을 찾으시였던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통합생산체계에 도입한 정보장치들이 우리의것이 아니라는것을 아시고 못내 서운해하시며 앞으로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할 때 우리의것으로 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날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죄책감을 금할수 없었다.

하기에 이들은 100% 우리의것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는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지한 사색과 탐구를 기울여 이렇게 오늘과 같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과학연구사업을 하나 해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 식으로 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고도 그 모든 성과를 과학자들에게 안겨주시며 그처럼 기뻐하시였다.

이날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뜻대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 높이 발휘해나갈 마음속결의를 다시금 굳게 다지였다.